

# 業 鏡 臺

○東萊天地를佛國世界를만든李敬玉氏은 鎮海教堂에서任한지幾年間에 佛敎라면서나리를할사내흔들은그곳에도新佛國을建設하고 一方으로敎育事業을始作하여 佛敎學院을設立한지三四年間에 成績이매우조흥으로 當地人士들로부터더는정찬은勿論이요 법이이곳외지들이오매 李氏의誠意을可히알것스며 더구나特別한것은 증은妻子의스며못손다는그외고들판에도 李氏夫人文福順女史은 敎堂에가치잇치 佛敎宣傳도가치하며 또는學校先生으로잇다는것은 李氏의靈特한手腕이라 아니할수가업는同時에 最後까지變치말고勞力해주며 아울러健康도비는바이다.

○玉泉寺前住持南某은 其寺에對하여 三世을通해보아도 다시입승大罪를지은것은 世人이共知하는바언이와이케도더런이南某上佐丁某도 其寺極樂殿監院으로赴任한지 不過一箇月에 一年豫算半分과寺中에들어올돈二百餘圓을中間척이를해가지고 不期去處로다러나나그야말로俗談에알대는바이다 수리대바에는 수리대바가나다.

○오래스동안世上이여들쳐하고 萬事가善決되고 四面八方으로향리잇는鷲山通度寺은 萬事가善決되고 四面八方으로향리잇는大衆이한자리에도아 議論性잇고和氣津々하게지낸다하니 所謂昔日鷲山에서게시든 釋迦文佛이果然再生을하든가 그동안복본大衆의가慶賀하는바이다.

○에스말에김충고그윽하면江原道란데 요새와서는한것보리고 우습기는江原道란이아 그중에도五藏山月精寺에서는 방귀만중해도경찰사라는것이다. 어대서公文한장이오면 大衆은밋치물세도업시 경찰사부터먼친가지고간다나 그렇게官廳이받으면十二萬圓事件은뉘생것는가

○여러번말하기되니 어느점으로보아서는 甚한듯도하지만은 그렇다고말하지만일수는없다. 金剛杆의困難이應當만올것이니 同情해주것다고自稱하고 돈앳은처의중분인드려 (일행은이반에는略하지만은) 해가넘어도 돈은아주물수업스니 그야말로賈名客附의最新式發明인가.

○禁酒라는律文이 잇슴에도不拘하고 千古寺刹의法道

○大邱八公山桐華寺에는 已未亂리에官人이차차년青年僧侶를 아즉복구를아니시키준다나 官廳이라면호랑이가치 무서워하는朝鮮僧이 기뻐의 그대가언제라고이치지俗僧을시키단이.

○今古에업든못처럼생긴 朝鮮佛敎僧侶大會에서는學生은參禮치못하게하였다나 學生은중안니고되물인가學生안인사람도學生만못한것이 應當만허이슬러이지 佛敎學生을시려한다면 學校卒業한사람외지해고 기왕이면朝鮮佛敎老長大會를여는것이잇더할지

○大會말이났스니한아더해보자 昨春에東京에서業을밋친 青年중한아가말하되 學生을이릴會에參加케해노면會議만불란하고일이잘안된다고하더런가에스말에「말에배산」다른이 一年도깨다못되우가 業만친자랑인가 아니요는것.

○所謂朝鮮의자랑이요 朝鮮人의全生命이며 우리佛敎의모리머라고하는佛某은 老軀도不拘하고 梨花女專出身인 當年二十三才의잇것치어였선 處女를밋기爲하야 옛十年間同居하든독점宅을살게한다나 色에이르

## 謹 告

本誌를爲하야 同情해 주신 左의諸寺에感謝를 들이오며 앞호로만흔 同情을바랍니다.

- 一金 參拾圓也 東萊郡 梵魚寺
- 一金 拾圓也 襄陽郡 神溪寺
- 一金 拾圓也 杆城郡 長安寺
- 一金 貳拾圓也 義城郡 孤雲寺
- 一金 拾圓也 聞慶郡 金龍寺
- 一金 拾圓也 同 大乘寺
- 一金 五圓也 同 尙州郡 南長寺
- 同 同 安東郡 鳳停寺
- 同 同 醴泉郡 龍門寺
- 同 同 同 鳴鳳寺